

V-리그 포스트시즌, '누가 이겨도 첫 우승'

대한항공·현대캐피탈·한국전력 봄 배구 입성 3개팀 감독들 "어렵게 잡은 기회 반드시 살리겠다"

봄 배구 입성에 성공한 남자부 3개팀 감독들이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했던 챔피언결정전 트로피를 향한 야망을 드러냈다.

세 명의 사령탑들은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NH농협 2016~2017 V-리그 포스트시즌 미디어 데이에 참석해 진검승부를 앞둔 각오를 밝혔다.

올 시즌 봄 배구 초청장은 1위 대한항공과 2위 현대캐피탈, 3위 한국전력에 돌아갔다.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 모두 아직 챔피언전 우승 경험이 없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6년 만에 정규리그 패권을 거머쥔 박 감독은 "정규리그는 두꺼운 선수층 덕분에 우승한 것 같다. 통합 우승을 하자"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항공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회복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박 감독은 "계속 1위를 유지해보니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 그 부분도 체크했다. 지금까지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남녀부를 통틀어 가장 연장자인 박 감독은 직설적이고 절도 있는 말투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어느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냐는 물음에

"고생해서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시크하게 답했고, 우승 공약을 내걸어달라는 요청에는 "우승하고 하면 안 되냐"며 손사래를 친 뒤 "그냥 '야, 수고했다'라고 할 것 같다"고 응수했다.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난 뒤에는 홀로 남아 트로피를 구석구석 살펴 플래시를 한 몸에 받았다.

최태웅 감독은 1년 전 아픔을 잊지 않고 있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18연승이라는 화려한 기록을 세웠지만 정작 챔피언전에서는 OK저축은행에 패해 우승이 무산됐다.

최 감독은 "매년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기억이 많은데 올해는 기필코 우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 선수 데니의 부진을 우려하는 시선을 두고는 "데니의 폼 상대가 많이 올라왔지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선수들이 활활 뭉치는 플레이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감독은 세터 강민웅을 변수로 꼽았다.

신 감독은 "민웅이는 대한항공에서 넘버 3 정도의 세터였다. 이곳에 와서 고생을 많이했다"면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었지만 갈수록 안정을 찾았다.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신뢰를 나타냈다.

박자로 대열에 합류한 한국전력이지만 맞대결에서는 밀리지 않았다.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 서울에서 열린 2016~2017 NH농협 V-리그 포스트시즌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문성민 선수(왼쪽부터)와 최태웅 감독,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 김혁민 선수와 박기원 감독,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 전광인 선수와 신영철 감독이 우승 트로피에 손을 대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과는 3승패로 맞섰고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현대캐피탈에는 5승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신 감독은 "마지막에 당한 1패가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문제점을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선전을 다짐했다.

남자부 포스트시즌은 19일 오후 2시 17분

천안유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플레이오프(3전2선승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여기서 이기는 팀은 25일부터 대한항공과 5전3선승제의 챔피언결정전을 갖는다.

/김민근기자

익산시-전북현대모터스FC 어린이 축구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15일 오전 11시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전북현대모터스FC와 '어린이 축구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소병홍 익산시 의장, 유인탁 익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박귀자 복지환경국장, 전북현대모터스FC의 백승권 단장과 최광희 감독, 이동국 선수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와 전북현대모터스FC는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육환경 개선 및 지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등 다양한 가족체육활동 운영,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행사 개최 등의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앞으로 전북현대모터스FC는 어린이의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익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FC야드 드림과 전북현대 FC트러스트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FC야드드림과 전북현대 FC트러스트 운영을 위한 운동장 제공과 현수막, 전광판,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전북현대모터스FC의 홈경기 일정을 홍보한다. 전북현대모터스FC는 정현을 시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전북현대 감독, 선수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강연과 시인회 개최, 익산소재 초등학교 홈경기 초청 및 체육활동 지원, 시즌권 단체구입 시 가격우대를 한다.

전북현대모터스FC 백승권 단장은 "익산시와 함께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어린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내 리그는 물론 해외에서도 좋은 활약과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FC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을 중심으로 환영한다. 축구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경기 일정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FIFA U-20 월드컵 조추첨

신태용호, 죽음의 조 편성

기니·아르헨티나·잉글랜드와 같은 A조

신태용호가 죽음의 조를 피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16면>

FIFA(국제축구연맹)는 15일 경기도 수원 SK아트리움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본선 조추첨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추첨 결과 한국은 기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와 함께 A조에 속했다.

A조 3번 포트에서 베네수엘라가 나왔지만 원칙상 한 조에는 같은 대륙에서 2개국 이상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B조에 넘어갔고 다음에 뽑은 잉글랜드가 한국과 같은 조에 들어왔다.

FIFA는 조추첨을 앞두고 대회 포트 배정을 실시했다.

한국은 프랑스, 포르투갈, 우루과이, 미

국, 독일 등과 함께 1번 포트에 합류했다.

FIFA는 최근 5개 대회(2007·2009·2011·2013·2015) 성적을 토대로 24개팀을 4개 포트에 분류했다.

승리 3점, 무승부 1점, 패배 0점으로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겼다.

2015년 대회는 100%, 2013년 대회는 80% 등 최근에 열린 대회에서 성적이 좋은 팀을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그 결과 유럽 예선으로 치러진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U-19 챔피언십 우승팀이자 2013년 터키 대회 정상에 오른 프랑스와 우승후보 포르투갈 등이 1번 포트에 배정됐다.

/김민근기자

부안서 19일 WBC 보디빌딩 국제대회 개최

부안에서 전 세계 보디빌더들이 대거 참가하는 국제대회가 열린다.

부안군은 오는 19일 즐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WBC(월드 보디 콘테스트) 전라지부가 주최하고 (주)세인보우포켓과 바디팩토리가 주관해 선수와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가하는 2017 WBC 챔피언십 인 제올라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순수 한국 토종 보디빌딩대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WBC의 대회는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오픈월드 챔피언십 대회다.

지난 2009년 9월26일 '제1회 피트니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상반기대회와 썸머대회, 하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피지크와 모델, 미즈버키니, 피규어, 머슬, 피트니스 바바디 등 7개 종목으로 나눠 펼쳐지고 있는 WBC대회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도 월드 챔피언십 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군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즐포만 갯벌생태공원의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하고 홍보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순창군,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20일 개막

2017년도 시즌 첫 대회인 제38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가 2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순창 실내체육관 및 제일고정구장에서 열린다.

대한정구협회(회장 이계영)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정구협회(회장 신동식)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대학·실업·동호인부부 남·여 단체전 남·여 개인전 단식, 복식으로 진행되며 전국에서 1,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또 이번 대회를 대비해 지난 1~2월에는 39개팀 300명이 순창을 방문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하기도 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17 국가대표 예선 3차 선발전 및 2017 주니어 국가대표 본선 1차 선발전을 겸하고 초등부는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 겨우내

갈고 닦은 기량과 열연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개최식은 20일 오후 5시 황수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